

구원의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



남정욱(숭실대학교 교수)

작가이며 출판영화방송등 문화부분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숭실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서로는 <편견에도전하는한국현대사>, <결혼> 등다수가 있다.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누나도 지옥에 갔나요?” 목사님은 웃으면서 답했다. “그건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어디선가 읽었던 유머인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봤을 얘기다. 애들 질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원래 애들 질문이 까다롭고 더 어렵다. 예를 들자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같은. 아이들은 현상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묻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 아주 가지가 많고 복잡하고 난해하다. 가령 십자가 예수 옆에 달렸던 강도 하나는 막판에 도발적으로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 당시 십자가형은 대부분 정치범의 몫이었다고 하지만 만약 진짜로 강도였다면 평생을 살인과 그에 준하는 악행으로 보내다가 마지막

한방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대단히 효율적인 인생을 산 셈이다. 이 에피소드의 축소 버전이 선데이 크리스천이다. 옛세 내내 쾌락에 찌들어 살다가 일요일 하루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한 주 마감이니 이 요령만 터득하고 산다면 세상에 이런 편리가 없다. 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행위구원이자. 가톨릭은 이미 오래 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명제를 공식화했는데 이 경우 아무리 마지막에 순발력을 발휘해 봐야 말짱 헛일이다. 구원은 그저 영접인가, 아니면 평소 갖고 닦은 선행의 총합인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 둘은 예수의 인지 상태에서의 선택이다. 그러나 연대가 안 맞거나 지역의 고립으로 애초부터 예수를 알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대체 어찌란 말인가 하는 찝찝함은 여전히 남는다. 그들은 아예 선택이란 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화 ‘태양의 눈물’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이렇

게 말한다. “신은 아프리카를 버렸어.” 브루스 윌리스의 말은 반만 맞다. 버리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아예 찾지도 않았다. 신이 찾지 않은 곳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 까다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영화가 있다. ‘그날이 오면’이란 영화다. 원제는 ‘Come Sunday’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왜 그런 한국어 제목을 붙였는지 납득이 간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칼튼 피어슨이라는 목사가 지옥이 없다는 설교를 했다가 이교도로 몰린다는 내용이다.

영화 앞부분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밝힌 대로 주인공인 칼튼 피어슨은 실존 인물이다. 1990년대 초 평균 출석률 6,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던 대형 교회의 목사였으나 문제의 설교 이후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교단에서의 영향력도 추락한다. 결국 2004년 동료들에 의해 이단 신고를 받고 최악의 상태에 몰린다. 영화에서 칼튼 피어슨이 고민에 빠지는 계기는 TV에서 우연히 본, 아프리카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이 설정은 다소 진부하다. 칼튼 피어슨이 TV를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면 아프리카의 앙상한 팔뚝과 쾅한 눈의 아이들은 이제 둔감해 질 정도로 익숙하게 소비되는 이미지다). 탄식을 연발하던 칼튼 피어슨은 묻는다. “주여,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당신은 어떻게 사랑의 주님입니까?” 몇 번 공허하게 외치고 불면의 밤을 보냈으면 곱게 끝났을 문제다. 그러나 순간 칼튼 피어슨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는 칼튼 피어슨에게 목소리는 다시 묻는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더니 구원하겠다는 칼튼 피어슨에게 목소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구원해야 한다면 네 아이를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제

일 먼저 구원에 나서라.” 알았으면 이제라도 네가 나서라는 얘기다. 그러나 칼튼 피어슨은 감히 거절한다. 자신은 이미 주님을 위해 40년을 바쳤으며 자기에게 그런 죄책감과 짐을 지우지 마시라며 머리를 싸맨다. 목소리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그래, 세상은 못 구하지.” 그런데 이어지는 목소리는 반전이고 충격적이다. “너는 꽤 낚치 않아도 된다. 그건 이미 우리가 했단다.”

원래 밤에 쓴 편지나 맹세는 아침에는 잊는 게 좋다. 보통 인간이라면 이 경험을 그냥 가슴에 묻고 간다. 그러나 그 밤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던 칼튼 피어슨은 기어이 사고를 친다. 설교 시작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제 평생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죠, 모든 건 선택이라고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



지. 제가 사랑한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기회도 없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못 본 사람들은 언제 그런 선택을 했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세탁’하고 살찌게 하려나 기대에 차 있던 양 무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목회자이니 당연히 성경 말씀을 동반한다. 칼튼 피어슨이 인용한 것은 요한 2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 밤 기억을 들려준다. “그들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구원 받았다. 내가 그들을 거두었다. 다 나의 곁에 있을지니라. 천국에서.”

양 무리가 슬슬 늑대의 무리로 변하기 시작한다. 성경을 다시 쓰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리를 뜨는 그들의 표정은 적대감으로 가득하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읽는 것이라 설명해봐야 다들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린다. 다음 날부터는 그를 따라 사역하던 목사들이 본격적으로 칼튼 피어슨에게 반발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2천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했고 그들의 항의는 오랜 동료애와 애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서 더 아프다. 목사들은 묻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당에 가고, 무슬림이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살든지 면죄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살인범, 강간범 할 것 없이 모두요.” 그들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 칼튼 피어슨이 되문자의례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세상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진실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 겁니다. 선교사 꿈. 해몽 등을 통

해서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제껏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튼 피어슨이 성경 뿐 아니라 그가 25년 간 해왔던 말 자체를 다 뒤집어엮었다는, 에둘렀지만 예리한 비난이다. 목사들의 충언은 다음 설교 때 칼튼 피어슨이 들은 목소리가 어찌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자기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튼 피어슨은 다음 설교에서 또 다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조한다. 결국 성도들도 떠나고 동료 목사들도 떠난다. 성도들이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지옥 같은 건 없고 구원을 받을 것이란 더는 그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것이다. 장 보러 갔던 칼튼 피어슨의 아내는 우연히 마주친 여자 성도에게 사악한 악령을 쫓기 위해 같이 기도하자는 소리까지 듣는다. 어제까지 존경받던 사모가 오늘은 악령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영화는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 칼튼 피어슨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누군가는 옹호하고 또 누군가는 격렬하게 반박한다. 하긴 기독교사(史)에서 선택 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해묵은 주제다. 물론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이 영화를 ‘중계’할 뿐 영화가 다루는 논점에 의견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 다만 이런 자문자답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교인은 하나님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는 길에 그가 동행하는 것과 그가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선택 할 수 없었던 이들의 구원에 대해 종교인은 구원을,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 따라가는 자는 묻지 않는다. 